

추석 농산물 쇼핑은 온라인으로

농진청,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농업경제 지원 온라인 판매기획전 오늘부터 청년·강소농 추석상품 브랜드관·농식품 상생협력관 등 개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등으로 판매 및 관료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맞이 온라인 판매기획전(판매기획전)을 연다. 이번 판매기획전은 전국의 우수 농업경제체가 생산한 농·특산물과 가공제품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우체국쇼핑과 네이버쇼핑을 통해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구매할 수 있다. 농진청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소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 제공과 온라인 상담도 진행했다. 우체국쇼핑(https://mail.egpost.go.kr)에서는 오늘부터 30일까지 청년농업인과 강소농이 생산한 우수상품을

선보이는 '청년농·강소농 추석상품 브랜드관'을 운영한다. 명절에 소비가 많은 과일·꽃감 등 제수용품과 다양한 선물용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5~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네이버쇼핑(https://shopping.naver.com)에서는 오늘부터 12월까지 농촌진흥청·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네이버가 함께 마련하는 '농식품 상생협력관(가칭)'을 개설한다.

농식품 상생협력관에서는 농업경제체가 생산한 우수 명절 상품과 다양한 농산물·가공 상품을 선보인다. 농진청은 농업경제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전 기간 동안 쇼핑몰 입점 수수료 일부를 감면한다. 앞서 농진청은 농협과 협업체 농업 하나로마트 고양점과 창동점에서 오프라인 판매기획전을 열고 지역의 우수한 가공 상품을 알리기도 했다. 농촌지원국 이천일 국장은 "올해 추석 선물로 우리 농산물을 농산 가공품을 구입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농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업의 모든 것' 경험하러

농식부, 24~27일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비대면 진행 농업의 미래 주제로 한 전문가 영상 대담 등 볼거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202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일자리 및 혁신 기술 등을 언팩쇼, 토크쇼, 영상기획전, 1:1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특히, 도시농업과 농업기술박람회 등 관련 농식품 행사를 통합·연계한 종합박람회로서, 농업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농식부 소비 촉진을 위한 기획 판매전, 온·오프라인 연계 체험 등이 제공된다. 상담은 농어촌공사, 마사회, aT 등 공공기관 20개, 농협계열사 20개, 민간기업 100개 등 총 140개 내외의 기관·기업이 참여해 온라인 화상 면접·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관련 기업에 관심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agri-jobfair.kr)에서 화상면담 후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14일부터 23일까지이다. 귀농 닥터 및 농업마이스터 등 귀농 선배들과의 1:1 상담도 사전신청(16~23일, 귀농 귀촌 종합센터(returnfarm.com))를 통해 진행한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 행사로서 세계적 미래학자를 초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의 변화와 농업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영상 대담을 준비 중이다. 기사 등을 통해서만 접해볼 수 있었던 농업로봇, 푸드테크 등 최신 농업 혁신기술들을 영상으로 최초 공개하는 언팩(Unpack)쇼도 개최한다. 또한 선배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쇼(총 6회)와 농식품 관련 기업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청년층의 농식품 분야 취창업 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부터 미래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상기획전도 체험할 수 있다. 쌀·식량, 채소·과일, 화훼 등 주요 품목별 소개, 사회 각계 소개 및 농장 제품을 활용한 유명 셰프(오세득)의 푸딩쇼, 청년 창업 우수사례, 생활 속 도시농업 소개와 적용사례, 농업 혁신기술 개발 이야기 등이 100여편의 영상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온라인을 통한 1:1 상담과

추석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농협몰, 쿠팡, SSG)에서 축산물 브랜드의 36개 제품을 시중가격 대비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청년 농업인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기획판매전도 함께 열린다. 이 밖에, 도시농업·화훼·약용작물 체험키트, 컬러링북 등을 추천 등을 통해 사전 배포하고 동영상도 통해 따라해보는 비대면 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농식부는 이번 농업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미래 혁신 성장동력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부 관계자는 "박람회는 공식 누리집(agri-show.kr)과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누구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많은 참여를 통해 최근 어려워진 야외활동을 대체하고 코로나 우울 등을 치유하는 시간이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허태웅 농진청장, 김제 재방문

최근 부임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김제시를 재방문하였다. 1차 방문은 긴장마와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2차 방문은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청년 창업농인 힐링박스 김기현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농부들의 애로를 듣고 격려하는 소통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6월 9일, 농촌진흥청 직원 30여명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농촌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금산면 양파밭서 수확 일손 돕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양파 15kg용 200포대를 팔아주는 등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처한 금산면 양파농가의 소득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의 김제시 재방문을 환영하며 김제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에 대한 관심과 농촌진흥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허태웅 청장은 힐링박스 김기현 농가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테마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6차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영농정책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지역 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청렴지킴이 '공명청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농어촌공 전북본부, 대학생 청렴지킴이 운영

수자원공사 등과 합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지역 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청

렴지킴이 '공명청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전북지역 공공기관 협의회가 체결한 '청렴벨트'의 후속활동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및 미래세대의 올바른 청렴문화 확산

을 위해 4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명청대'란 공공기관을 밝히는(明) 청렴한 대학생으로 팀당 4인,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간 청렴정책 공유, 합동 청렴캠페인, 청렴 관련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대학생들과 함께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국내자산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민연금공단, 신한은행 2순위·KEB 하나은행 3순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해 국내자산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 선정 공고 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국내자산의 수탁은행 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에 이어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을 선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업무의 위험 분산 및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3년을 주기로 국내의 수탁은행을 선정

하며, 금융투자부문 각 자산군 보관 업무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에 선정된 협상대상기관과 세부적인 기술협상 등을 진행해, 올해 연말까지 국민연금 수탁은행 최종계약을 각각 체결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전체 적립금 752조1,000억원의 약 64%인 479조8,000억원 상당이 국내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주식 131조 9천억 원, 채권 323조6,000억원, 대체투자 24조2,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의 보관·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가입혜택

- 소유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보장
-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 6억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가입조건

- 연 령 :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대상농지 : 전·답·과수원(실제 영농에 이용)

kr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063-580-1015

LX 공간정보아카데미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직무대리 김영욱)가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온라인 교육으로 공간정보 산업분야 인력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지난 7월부터 130여 명의 비대면 강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코로나 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직업훈련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컨소시엄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전문분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지원 사업이다.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 실습' 과정은 수강한 김상우(울포랜드) 수료생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기관들의 교육과정이 취소되어서 걱정이었는데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비대면 교육을 제공해서 다행이다"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영욱 국토정보교육원장 직무대리는 "시대의 요청과 변화에 부응하는 우수한 교육의 제공이 중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2014년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동훈련센터로, 올해는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운영되는 총 31개의 교육 중 13개 과정을 쌍방향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로 제공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농협 최고의 영예' 언다

NH농협은행 삼천동지점 '총화상' 수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창립 제59주년을 맞아 농협은행 삼천동지점(지점장 김형만)이 농협 최고의 영예인 '총화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농협 총화상'은 전국의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인화단결, 사회공헌, 친절봉사, 사업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농협 최고의 영예로 손꼽힌다. 삼천동지점은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단결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종합업적 1위 달성, 이달의 농협인상과 NH

BestBanker 우수 직원을 다수 배출하는 등 농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고객 시은행사, 청소년 금융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농협 가치 구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형만 지점장은 "무엇보다 농협은행을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님 덕분에 총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